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박동진*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2015) 청소년 조사데이터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aron & Kenny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도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I. 서론

한국 사회는 꾸준히 외국인들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다. 한국 사회는 가히 다문화 사회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등을 위한 다양한 지

* 주저자, 교신저자 : 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 wookana@hanmail.net

원체계를 마련하여 대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용재, 2012).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이 한국사회에 들어오면서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고, 이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혼인을 하게 되면서 전체 혼인 중에서 국제결혼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9)에 의하면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은 2,430,589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및 90일 미만 체류할 목적의 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총 국내 체류외국인을 의미한다. 한편, 행정안전부(2018)에 의하면 2018년 11월 기준 전체 다문화가족은 963,801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현황전체 한국인 대비 외국인의 비중을 보면 이와 같이 다문화 가족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 사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도 그 수도 역시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수가 전국적으로 220,950명(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8,804명, 국내출생 212,146명)인 것으로 나타날 정도이다(행정안전부, 2018). 이들 사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한국에 들어온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과거부터의 논의에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에 대한 논의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송효진, 안소영, 2016; 김수진, 홍창희, 2017; 한승수, 이승철, 2017; 송채수, 2019).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청소년기라는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심리적·정서적인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불안정한 상황(김소영, 윤기봉, 2016; 김은경, 김종남, 2016)에서 특히 이중문화 속에서 문화적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은영, 2015). 다문화 청소년들은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외국인인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한국어 습득이 다소 제한되어있고, 이에 따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희 외, 2010; 김민영 외, 2016).

또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안정적으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김영숙, 우정한, 2012). 이에 따라 인지, 심리, 정서적인 발달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황선영, 2013; 백종규, 염동문, 2018),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습적인 측면에서나 또래관계 등에서 부정적인 결과들이 다수 발견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홍주, 박길태, 2010; 천호성, 박계숙, 2012; 송진영, 백별아, 2018).

이는 물론 다문화 가정의 열악한 사정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현상은 아니다. 한국사회의 타 문화에 대한 강한 배타성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전병주, 2012; 김수미, 정경은, 2013),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열악한 지위와 처우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 부모의 양육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적응과 함께 사회적응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박순희, 2009; 이덕희, 2016).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 중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문화적응 및 정착단계에서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갈등을 말한다(Berry, 2002).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으며(Wong et al, 2003), 차별감, 소외감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거나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느끼는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1997).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부모 중 한 쪽, 또는 모두가 외국인이므로 한국문화뿐 아니라 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한국에서 성장해가고 있기에 부모 세대에 비해서는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소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가정환경에서 그리고 학교 등 외부환경에서 요구하는 가치, 규범 등이 충돌함으로써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지속되고 반복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김민주, 윤기봉, 2018).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전병주, 2012; 전수정, 윤혜미, 2013; 이덕희, 2016)에 대해 접근하거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등과 같은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봉초운, 정윤희, 홍세희, 2018)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김은경, 김종남, 2016; 강화, 배은경, 2018), 이를 살펴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져있고

(Zulling, et al,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를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이지연, 그레이스정, 2016; Barnes & Lightsey, 2005).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의 스트레스라는 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게 되는 것이 예측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현선(2010)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김민주, 윤기봉(2018)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는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현 상황에 대해 잘 적응하여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경직이 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융통성있게 반응하여 원래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회복하게 하는 역동적인 능력을 말한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김연화, 2010; 송정화, 2011; 김선아, 2012; 유영아 외, 2018; 성경주, 이연수, 2018). 또한 김소영, 윤기봉(2016)은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 초기치 및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문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도 일반 청소년의 경우와 같이 자아탄력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김민주, 윤기봉(2018)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자아탄력성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김민주, 윤기봉(2018)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각 변인의 측정시기가 다른 자료를 기초로 검증을 실시하여, 동일한 시점에서의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여 밝히지 못한 한계가 다소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의 청소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2013)의 사회적지지, 중학교 1학년 때(201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 중학교 2학년 때(2015)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 전반에 대해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탄력성이 어떻게 매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다소 발견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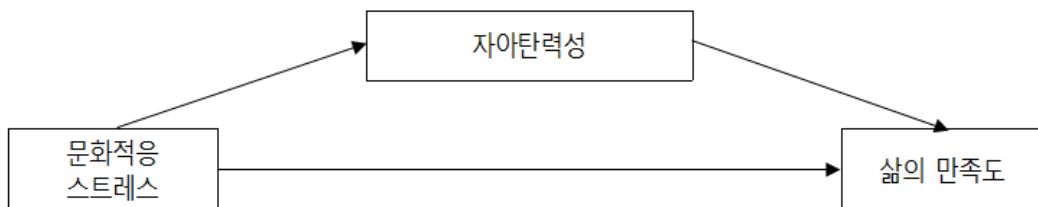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또한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MAPS)’의 5차년도(2015)의 청소년 조사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조사데이터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자녀 등이 포함되며,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나, 모집분포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제결혼자녀가 주요대상이다(양계민 외, 2017).

이 조사데이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단위로 총 7차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1차년도(2011)부터 6차년도(2016)자료까지 공개되어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데이터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이 모두 조사된 5차년도(2015)의 청소년 대상 조사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5차년도(2015)는 중학교 2학년인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MAPS)’의 5차년도(2015) 청소년 대상 조사데이터의 원 데이터 중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별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Hovey & King(1996)의 SAFE(Scale for Adolescent) 척도를 수정하여 노충래(2000)의 문항을 수정한 홍진주(2004)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은 “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변에서 한

국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나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 “나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한국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외국인 부모님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만 10개 문항 중 “외국인 부모님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는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α 는 .747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외(2006)를 인용한 김지경 외(2010)에서 발췌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은 “나는 사는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로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는 .864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 &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 심혜원(2002)이 변안한 뒤 수정·보안한 문항을 권지은(2003)에서 재인용하여 수정한 김지경 외(2010)에서 발췌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은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척도의 Cronbach's α 는 .909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후 기존 변수의 설명량 감소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 49.1%, 여 50.9%이었으며, 연령은 14세가 88.4%, 13세 7.5%, 15세 3.6%, 16세 0.4%, 17세 0.1%이었다. 거주지역은 경인 25.8%, 경상권 23.0%, 전라 및 제주권 21.3%, 충청 및 강원권 19.3%, 서울 10.6%이었으며, 부모의 외국인 여부는 모 96.4%, 부 3.3%, 둘 다 외국인 0.2%, 둘 다 한국인 0.1%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661	49.1
	여	686	50.9
	합계	1,347	100.0
연령	13세	101	7.5
	14세	1,191	88.4
	15세	48	3.6
	16세	6	0.4

구분		빈도(명)	백분율(%)
	17세	1	0.1
	합계	1,347	100.0
거주지역	서울	143	10.6
	경인	347	25.8
	충청 및 강원권	260	19.3
	경상권	310	23.0
	전라 및 제주권	287	21.3
	합계	1,347	100.0
부모의 외국인 여부	부	45	3.3
	모	1298	96.4
	둘다 외국인	3	0.2
	둘다 한국인	1	0.1
	합계	1,347	100.0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변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왜도의 절대값(-.315~1.216)이 3을 넘지 않으며, 첨도의 절대값(.063~1.751)이 10을 넘지 않아 각각 정규분포성 조건을 충족시켰다(Kline, 2015).

주요변수들 간의 Pe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매우 강한 부(-)적 상관($r=-.269$, $p<.001$)을 보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r=.578$, $p<.001$)은 삶의 만족도와 매우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1. 문화적응 스트레스	1		
2. 자아탄력성	-.237***	1	
3. 삶의 만족도	-.310***	.578***	1

	1	2	3
최소값	10.00	20.00	3.00
최대값	34.00	56.00	12.00
평균	14.17	42.80	9.43
표준편차	3.43	6.37	1.85
왜도	1.295	.272	-.315
첨도	1.645	.063	.087

*** $p < .001$

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조사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로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R ²	F
	B	S.E	β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삶의 만족도	-.168	.014	-.310	-10.232***	.096	143.497***
문화적응 스트레스 → 자아탄력성	-.439	.049	-.237	-8.945***	.056	80.005***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 삶의 만족도	-.099 .156	.012 .007	-.184 .535	-8.222*** 23.932***	.366	370.731***

*** $p < .001$



*** $p < .001$

[그림 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310$,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237$,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18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535$,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beta = -.184$, $p < .001$)은 2단계에서 나타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beta = -.237$, $p < .001$)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의 부분매개효과는 Z값은 7.179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도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들 변인 간의 상관성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오현선(2010), 김민주, 윤기봉(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를 증감시키는 데 유의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면 삶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영아 외(201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써, 다문화 청소년도 일반적인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김민주, 윤기봉(2018)의 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한데,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백미숙(2009), 오현선(2010)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 결과에서는 한국거주기간이 길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정된 성장과 함께 특별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보다 면밀한 분석과 고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관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자아탄력성이 낮아지고,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관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면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감소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낮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김민주, 윤기봉(2018)의 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으며, 같은 시점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여전히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문화와 타 문화 간의 충돌로 인해 경험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 문화와 타 문화, 특히 부모 국가의 문화에 대해 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여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보다 더 높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 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간 충돌 경험을 줄이고, 문화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이중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 시 상담지원을 통해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아탄력성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도 필요하지만, 선행연구들에의 결과를 살펴볼 때, 자아탄력성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에도 이중문화수용태도, 친구 지지, 교사지지 등이 주요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경, 양계민, 2012; 김정숙, 신원우, 2017).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향상시키면서,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이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다문화 가정 및 이들 가정의 자녀들인 청소년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지닌 경우가 다분하다(김영숙, 우정환, 2012; 김수미, 정경은, 2013). 본 연구결과에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고, 우리들의 이웃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다문화 가정, 외국인 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

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함의가 있다. 우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밝혀져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다문화 부모의 문화적 배경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제고할 수 있었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인임을 알 수 있었는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는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함을 제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횡단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측정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와 같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의 종단적인 변화궤적을 살펴볼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발달궤적을 살펴보고, 여기에서의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살펴본다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의 발달궤적을 연속성 있게 살펴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화, 배은경(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62, pp.131-164.
- 김민영, 이경재, 최성희, 최철희(2016).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유창성과 의사소통 태도, 언어치료연구, 25(4), pp.199-210.
- 김민주, 윤기봉(2018).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pp.373-388.
- 김소영, 윤기봉(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정 : 변화에

-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pp.271-296.
- 김수미, 정경은(2013). 다문화청소년의 낙인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4, pp.28-49.
- 김수진, 홍창희(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언어문제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pp.195-211.
- 김선아(2012). 남녀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부모, 또래, 교사관계)와 행복감의 관계 :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10(4), 15-26.
- 김승경, 양계민(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9(11), pp.147-176.
- 김연화(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pp.287-307.
- 김영숙, 우정환(2012).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3, pp.69-103.
- 김은경, 김종남(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9(4), pp.21-43.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숙, 신원우(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태체계적 요인과 자아탄력성간의 관계,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 pp.469-477.
- 김준범, 박성훈(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학교사회복지, 41, pp.77-100.
- 김홍주, 박길태(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특징 : 일반 청소년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9(1), pp.93-128.
- 박순희(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pp.125-254.
- 봉초운, 정윤화, 홍세희(2018).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9(3), pp.41-69.
- 백종규, 염동문(2018).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사회연구, 11(1), pp.295-319.
- 송진영, 백별아(2018).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통합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4(6), pp.687-705.

- 송채수(2019). 이중언어사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동남아출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48, pp.245-280.
- 송효진, 안소영(2016). 다문화가족 자녀에 관한 가족관련법의 과제, 아세아여성법학, 19, pp.43-72.
- 성경주, 이연수(2018). 청소년의 내재화된 문제행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 자아탄력성과 직업선택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2), pp.235-255.
- 오현선(2010). 충남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유영아, 김은하, 김성수(2018).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비교, 한국웰니스학회지, 13(3), pp.305-219.
- 이덕희(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 pp.544-552.
- 이민경(2016).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재구성, 교육사회학연구, 26(1), pp.101-120.
- 이상희, 고영림, 이현래, 정태인(2010). 다문화가정 유,아동 자녀의 언어구사에 관한 실태조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2(4), pp.395-412.
- 이용재(2012). 다문화사회 개념에 대한 고찰 - 갈등의 양상과 해소를 중심으로 -, 다문화와 인간, 1(1), pp.35-61.
- 이지연, 그레이스정(2016).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pp.336-362.
- 양계민, 강경균, 김주영(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병주(201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11), pp.29-38.
- 정민(2018).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9(4), pp.1455-1470.
- 진은영(2015).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역량의 매개효과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2, pp.303-326.
- 천호성, 박계숙(2012).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415-442.

- 최경란, 홍지영(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9(1), pp.347-374.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4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한승수, 이승철(2017).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자녀 교육지원방안 연구 - 경기도 다문화유치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9(2), pp.47-66.
- 홍진주(2004).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황선영(2013). 다문화가족아동의 정서와 사회적응실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1), pp.171-196.
- 행정안전부(2018).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세종 : 행정안전부.
- Barnes, W. W., Lightsey, O. R.(2005). Perceived Racist Discrimination, Coping,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3(1), pp.48-61.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Berry, J. W.(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pp.13-26.
- Berry. J. W.(2003).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5-34.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ong, C. A., Eccles, J. S. & Sameroff, A.(2003). The influence of ethnic discrimination and ethnic identification o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school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6), pp.1197-123.
- Zulling, K. J., Valois, R. F., Huebner, E. S., & Drane, J. W. (2005). Association Among Family Structure, Demographics, and Adolescent Perceive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pp.195-206.

Abstract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rk Dong 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life satisfaction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fifth year(2015) adolescents panel data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obel test proposed by Baron and Kenn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ultur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negatively correlated, and acculturation stress and ego resilience were negatively correlated. Second, accultur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accultur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rd, the ego resilience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supportive measures to reduce acculturation stress and improve ego resilience in seeking support measures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word : Multicultural Adolescent, Acculturation Stress, Life Satisfaction, Ego Resilience, Mediating Effect,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투고일 : 2019. 06. 03. 심사일 : 2019. 06. 20. 게재확정일 : 2019. 06. 25.